

10. 에서의 가족 (36:1-8)

(1) 표제 (36:1)

에서의 가족

- 1)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에 따라 가나안 바깥에 살면서도 번성 - 에서가 세일에 안전하게 거주(32:3)
- 2)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급증 (36:31) -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.
- 3) 에돔 족속은 암몬이나 모압보다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관계 - 신 23:7

1) 표제 (36:1)

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

- 36:1/ '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': * 창세기에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 '톨르돗'경구.
* 에서를 '에돔'으로 확인함으로써 에서가 이 나라의 시조임을 강조.

(2) 에서의 아내들과 아들들 (36:2-5)

- 2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
- 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옷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
- 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
-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

- 36:2-3/ '에서가... 맞이하고': 에서의 세 아내.
'가나안 여인을 중... 아내로 맞이하고': 이삭이 허락하지 않은 여인들(28:1, 6). 친족과 결혼한 야곱에 대조.
'이스마엘의 딸 느바옷의 누이 바스맛': 바스맛이 에서와 결혼함으로 거부된 아들들의 후손들이 통혼하게 됨.
- 36:4-5/ '낳았고... 낳았으니': 에서의 다섯 아들.
'엘리바스': 데만 출신 욥의 친구와 동명이인. 에서의 족보에서 데만은 엘리바스의 아들.
'르우엘': 모세의 장인과 동명이인.
'여우스', '알람', '고라': 주요 족장이 됨.

(3) 에서가 세일로 이주하다 (36:6-8)

1) 에서의 소유 (36:6-7)

-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
-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

- 36:6/ '에서가... 모든 사람과...': 에서는 모든 소유와 가족을 세일로 영구적으로 옮김.
'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': * '야곱의 얼굴로부터'-형제간의 다툼과 화해를 떠올리게 함.
* 야곱이 단독으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됨.
- 36:7/ '소유가 풍부하여... 땅이... 용납할 수 없었더라':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와 맥을 같이함.
* 아브라함과 롯처럼 평화로운 이별, 에서도 큰 재산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.

2) 에서의 거주 (36:8)

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

- 36:8/ '거주하니라':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한 것을 묘사하는 히브리어로, 영구 거주를 의미.

11. 에서, 에돔 족속의 조상 (36:9-37:1)

에서의 후손

- 1) 급성장한 민족 에돔의 계보
- 2) 먼저 자리 잡은 세일의 후손 '호리'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.
- 3) 이스라엘 왕조 시대 이전에 오랫동안 여러 통치자들을 냈음을 보고(36:31)
- 4) 야곱의 지파들은 영향력을 얻을 때(유다에서 '홀'이 일어날 때)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
-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 (삼상 8:19-20).

(1) 가나안의 야곱 (37:1)

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

- 37:1/ '야곱이...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': '머물렀다'-외지인으로써 거주함.
'가나안 땅에': 17:8의 약속을 암시하지만 약속은 '온 땅'을 가리킴-다윗 왕조 시기에 실현.

12. 야곱의 가족: 요셉과 형제들 (37:2-50:26)

(1) 요셉의 어린 시절 (37:2-36)

1) 표제 (37:2a)

2a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

- 37:2a/ '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':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음.

2) 꿈꾸는 자 요셉 (37:2b-11)

야곱의 아들들의 경쟁

- 1) '꿈'은 37장과 이후의 이야기에서 지배적인 주제.
- 2)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갈등과 요셉이 꾸 꿈-꿈 때문에 요셉을 팔았지만 그 때문에 꿈을 이루는 역설.
- 3) '보았다'와 '말하다'가 결정적인 구성요소 - 45:12에서 4절의 효과를 뒤집음.

2b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
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
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

- 37:2b/ '십칠 세의 소년으로서': 연대기적 기준점을 제시; 다가올 고난에 대한 불길한 징조(이삭-이스마엘, 야곱-에서).
'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':
* '나쁜 보고'의 내용과 그에 따른 요셉의 성품의 문제(고자질쟁이인지 순종적인 아들인지)는 감추어진 것.
- 그것이 살인 충동을 유발한 것은 아닐 것.
* 아우로서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보다 우월한 권력자의 지위를 가짐
- 애굽에서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부조화에 대한 징후.
- 37:3-4/ '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':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을 묘사-야곱에게 요셉은 사라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.
'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': 야곱이 라헬에게 품었던 편애를 반영.
- 야곱이 겪은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도 겪어야 하는 과정.
'채색옷을 지었더니': 요셉에게만 '장식이 가득 달린 의복'을 주어 긴장을 악화시킴
* '의복'이라는 중요한 문학적 관념을 소개:
- 요셉의 사회적 지위가 변한 것을 드러냄.
- 형들은 요셉의 옷으로 그를 알아보고 죽음의 증거로 만들.
- 야곱에게 기쁨을 준 겉옷은 날마다 겪는 괴로움의 상징이 될 것.
'형들이... 그를 미워하여':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있었던 경쟁을 상기.
'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': 야곱의 편애로 인해 가정에 평화가 사라짐.